

무武보다 협俠,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

# 신념을 위해서

무협소설은 재밌다!?

물론 무협소설은 재밌다. 그런데 무협소설은 재미있다는 이 선입관을 단박에 부수어 버리는 무협소설이 있으니, 바로 좌백의 장편 무협소설 《혈기린외전》이다. 그럼 뭐야? 《혈기린외전》은 재미있지가 않다는 거냐? 라고 물음지도 모르는 독자를 위해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혈기린외전》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

사실 무협소설을 읽으면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읊조리고 있는 스스로가 이상하기도 했다. 《혈기린외전》을 읽는 내내, 나는 자주 책읽기를 멈추고 책의 걸장을 확인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무협지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자서自序에서 작가인 좌백은 이렇게 밝힌다.

“사냥꾼의 방식으로 무림 고수들을 상대하는 이야기, 삼류 무사가 천하제일고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이야기, 본질적으로 무림인이 될 수 없었던 한 사내가 바라본 무림과 협객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었다.”

또, 연재판의 서문에서 좌백은 이렇게 말한다.

“무협지武俠誌는 '무武'와 '협俠'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고들 합니다. 이 말을 돌려놓으면 무와 협이 없으면 무협지가 아니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무와 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진 않을까요? 도대체 무라는 것은 뭐고, 협은 또 무얼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질

문에 답하려 노력하는 행위라는 작가, 좌백. 그는 《혈기린외전》을 통해 스스로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게 되는가?

그해의 가을은 끔찍했었다.

세월이 흐르면 아픈 기억들은 사라지고 청춘의 추억들이 옛 기억과 뒤섞이는 것이라, 그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 과거는 항상 지 금보다 좋은 것이지만, 그해의 가을을 두고 '옛날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혈기린외전》 1권 23쪽

봄부터 몰아친 황사바람과 다음에 이어진 대가뭄.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타오르고, 사람들의 목도 그렇게 타오른 가을.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는 가을. 그 가을에 《혈기린외전》의 주인공 '왕일'은 병든 아버지와 지친 어머니,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다. 은자 스무 냥에 '진가소'라는 이름으로 칠 년 간 대신 군역을 살게 되는 길.

이제 왕일은 진가소라는 이름으로 밟기만 해도 부스러질 것 같은 벼랑 옆 외길을 걷는다. 남만이라는 그 외길에는 타오르는 갈증과 뒤죽박죽 되어버린 시간과 아우성을 지르며 이리저리 쫓겨 다니지만, 사실은 도망갈 곳이라곤 아무 곳도 없는 벼랑 끝의 현실만이 존재한다. 진가소가 된 왕일은, 이 늪을 되도록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오로지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아무것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 사냥꾼이 되어버린다.

아침이 오기 전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의 차가움이 왕일의 정신을 현실로 돌이켜 놓았다.

《혈기린외전》(전3권) 좌백 지음 | 시공사 | 각권 500쪽 내외 | 각권 값 13,000원



‘누가? 그리고 왜?’

그는 어젯밤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에서 찾아낸 화살촉을 내려다보았다. 이리의 이빨처럼 새하얗고, 뾰족한 삼각형의 밑변 양쪽으로는 날카로운 미늘이 돋아나 있어서 꽃히면 살을 베어내지 않고는 뺄 수도 없는 화살. 소위 낭야전이라 부르는 화살이었다. 게다가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살의 미늘은 아래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면서 삼중으로 돋아나 있는 것이었다.

이런 흉악한 형태, 잔인한 용도의 화살은 지옥 같은 남만에서도 쓰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 한 군데에서밖에 사용하지 않는 화살이었다. 왕일은 고개를 저었다.

“강호인들이 왜 가난한 농가를 건드린단 말인가!”

(중략)

그 하늘이 무너졌다. 왕일은 고개를 들어 동천을 보았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들판을 메운 수수밭과 하늘뿐, 붉은 수수밭을 떠오르는 태양이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움직일 때였다. 《혈기린외전》 1권 100~101쪽

지옥 같은 남만에서 돌아온 왕일. 그러나 되돌아온 고향에서 왕일이 마주치게 되는 것은 무너진 하늘뿐이다. 더러운 천으로 친친 동인 길쭉한 물건, 그 지옥 같은 남만에서 가져온 넓적한 칼 한 자루를 들고 왕일은 자신의 삶을, 그의 가족의 삶을 폐허로 만든 장본인에게로 달려간다.

성질 거칠기로 유명한 이 창주 땅에서 그래도 다들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만이 여기 진가장의 하인, 호원무사護院武士가 될 수 있었

다. 그런 그들이 볼 때 왕일 따위가 칼을 들고 설친다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왕일과 그의 손에 들린 칼을 비웃으며 저마다 곡괭이와 도끼, 혹은 삼지창과 귀두도를 들고 포위망을 좁혔다. 다른 한 손에는 햇불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보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왕일은 보지 않고도 싸울 수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지옥에서 배웠다. 오랜 남만 생활은 그를 전문적인 싸움꾼으로, 적어도 보통의 병졸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전문적인 싸움을 익히도록 만들었다. (중략) 적을 흔들어놓고 자신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 거기에 생사가 판가름될 것이다. 그는 진짜로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두려워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린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혈기린외전》 1권 123~124쪽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터득했던 왕일의 칼이 강호의 칼을 꺾지는 못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빠르기, 피할 곳이 없어 보이는 완벽함을 강호의 칼은 가지고 있었다. 이 강호의 칼을 꺾고 복수를 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왕일은 남만에서 가져온 독에 자신을 내던진다.

강호에서 왕일은 여러 강호인을 만나게 된다. 왕일이 만나게 되는 강호인 중에는 악명이 높은 대단한 고수들도 있는가 하면, 한다면 하는 사람들, 사소한 원한도, 보잘것없는 은혜도 만드시 되값고 마는 사람들, 신념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열혈남아에 협객이고 깎아 말하면 세상에 그런 악종이



**이 글을 쓴 이명랑은**

1997년 문학무크지 <새로운>에 시 <에피소프의 꽃> 외 2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 연작소설집 <삼오식당>을 냈으며, 2002년 문예진흥원의 '내일을 여는 젊은 문학인 창작지원금' 을 수혜했다.  
현재 창작활동과 함께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문예교사활동을 하고 있다.

다시없다 할 사람들, 자식만큼은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자유를 저당 잡힌 사람들. 저마다의 운명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무리에 왕일 자신도 합류하게 된다.

해가 뜨고, 피곤한 하루가 다시 시작하고, 달이 뜨면 낮보다 그리 좋지 않은 밤이 온다.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고, 달이 뜨면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든다. 그것이 삶이 아닌가. 거기에 해가 왜 뜨고, 달이 왜 뜨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 그건 그보다 좀더 삶이 편하고, 한가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떠들면 그만인 것이다. 독이라는 것도 그랬다. 그에게는 지금 그의 몸 속을 흐르는 독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도 죽을 수 있으며, 괴로울 때도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독은 그에게는 현실이지 설명을 필요로 하는 학자의 헛소리가 아니었다. 《혈기린외전》 2권 446~447쪽

설명 필요 없는 현실,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삶, 그 한가운데서 왕일은 한 사내를 만나게 된다. 자신처럼 치명적인 독에 중독된 사람, 그러나 그 치명적인 독을 상처가 아니라 삶의 원동력으로 치환할 줄 아는 사람, 혈기린을. 신념을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내, 혈기린의 죽음 앞에서 왕일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죽음을 불사하고도 해야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인가. 약속이란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가. 죽음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건너서 대를 이어 지켜야 할 그 무엇이, 그 어떤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왕일은 혈기린의 죽음 앞에 약속한다.

“제가 약속의 나머지를 지키겠습니다. 혈기린으로서요.”  
독공지인이 된 왕일은 이제 혈기린이 되어 강호에 나가 혈기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좌백의 《혈기린외전》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시련이 있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인간군상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웅이 되어 강호를 평정한다, 는 식의 줄거리로 보자면 《혈기린외전》 또한 다른 무협소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다른 무협소설에는 없는 그 무엇이 《혈기린외전》을 아름답게 감싸 안고 있는데 그것은 《혈기린외전》의 마지막 문장에 함축되어 있다.

“백호와 청룡에겐 명가의 피가 있다. 주작에게는 천부의 재질이 있지. 현무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오랫동안 궁금해 했다만 오늘 알겠다. 불굴의 의지야말로 어떤 독보다도, 암기보다도 강한 힘이라는 걸 말이다.”

좌백의 동료이자 애인이었고 지금은 그의 아내가 된 작가, 진산의 말처럼 《혈기린외전》은 ‘무’가 진화하고 있는 동안 팽개쳐져 있던 ‘협’, 먼지가 덮여 보이지 않던 ‘협’을 정성껏 닦아내 햇빛 아래 드러나게 만든 손임에 분명하다. ☞